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게 호남의 염원”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6>이재명

2박3일 동안의 광주·전남지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오후 귀경 직전에 만난 이재명 성남시장의 얼굴은 밝고 자신감이 넘쳤다.

주춤했던 지지율이 다시 꿈틀거리고 호남의 적극적 지지층을 확인한 영향인 듯 했다.

KTX 송정역사에서 1시간 동안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차별없는 공정한 세상’을 새로운 시대의 화두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등에 대한 해법과 함께 호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애정도 나타났다.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인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속 시원한 사이다 화법과 명확한 방향성으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더불어 민주당의 강력한 예비 주자로 떠올랐다.

그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 대선 승리라는 시대의 이변을 이끌어 낼 것인지 주목된다.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분부장

- 문재인 전 대표와는 아직도 지지를 격차가 있다. 민주당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장담하는 근거는.

▲ 이번 경선에서는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닌, 돼야 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결국, 여론조사가 아닌 적극적 지지층의 참여가 승부를 좌우한다. 저는 변방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내 세력도 없고 정치적 유산도 없다. 그야말로 이변을 일으키며 여기까지 왔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번 경선에서 이 같은 열망이 다시 증명될 것이며 대선에 나선다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열망이 폭발하며 승리할 것이다.

- 호남을 정권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 호남은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지역 간의 차별이다.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은 호남 민심의 염원이자 제 꿈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재정 권력과 정책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이렇게 되면 전남 3조8000억 원, 전북 3조 원, 광주 1조2000억 원 정도의 자주재량 재정이 생긴다. 두 번째로 호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 기반시설 확충 또는 전략 산업 배치 등을 통해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탕평 인사도 제대로 해나가겠다. 호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철회하겠다. 야권의 중심이라고 그동안 역차별 받았던 것을 바로잡겠다. 이것이 호남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정권이다.

- 호남 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은.

▲ 결국은 돈 문제다. 경제는 돈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회전할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다.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미 청년 배당을 통해 성남에서 확인됐다. 특히 호남은 농어업인구와 노령인구가 많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28조원이 소요되며 광주 1조2000억 원, 전남



기본 소득 공약 호남 경제 마중물 될 것

노동권 강화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연동

사드는 잘못 끼워진 단추 원점서 재검토를

1조6000억 원, 전북 1조4000억 원 정도가 매년 지급되면서 지역 경제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다.

▲ 충분하다. 올해 예산이 400조원이다. 여기의 7%가 28조원이다. 대통령의 자유재량 1년 예산이 142조원이다. 비효율적 예산을 조정하면 된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 국가 경제가 위기인데 해법은.

▲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실행 여부가 문제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선순환이 안 돼서 생긴 문제다. 재벌 등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은 자원과 기회,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정경유착 등으로 경제 생태계가 망가진 것이다. 재벌 기업은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반면, 정부와 국민도 가난해졌다. 유훈 수요가 사라지고 경제가 침체된 것이다. 재벌의 황제 경영을 철폐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 안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 노동권 강화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동된다.

- 외교·안보 문제도 산적해 있다.

▲ 사드 배치로 한미 관계는 종속관계, 중국과는 적대적,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돼 있다. 북한과는 군사적 대결구도가 더 고조됐다. 평화와 통일은 더 멀어졌다. 해법은 문제 속에 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여 있는 현실에서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

면 된다. 어느 한 쪽이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굴복하면 안 된다. 지금의 사드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다. 조금 힘들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한다. 하지만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국제 공조가 사드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경제 발전, 안보·군사적인 측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결정됐으니 따르고 봉합한 뒤 대책을 찾아보자고 하면 되겠느냐. 국가 지도자는 자기 철학이 뚜렷해야 되고 강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에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 새로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수단도 강구해봐야 한다.

- 탄핵 기각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기관은 국민 민심에 복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에 승복을 해야 한다. 법이라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이다. 국민의 뜻을 대리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뜻에 승복하지 않고 다른 결론을 낸다면 국민은 이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대항해 싸울 권리가 있다.

- 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총을 들고 폭력적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뜻을 더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 퇴진 하라고 싸웠고 법적수단으로 탄핵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계속 퇴진 운동을 할 것이다.

- 대한민국 적폐 해소에 대한 입장은.

▲ 적폐의 근원적 뿌리는 재벌의 횡포다. 경제 권력을 가진 재벌의 횡포에 놓이냐는 부패한 정치체력이 문제다. 정경유착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적폐 해소의 핵심은 부패한 정치, 재벌의 횡포, 정경유착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다. 해소할 방법은 엄정한 처벌이다. 청렴하고 강직한 대통령을 선출된다면 적폐 청산이 가능하다. 국가의 위기는 권력의 부패에서 온다. 기업을 부패하는 것도 권력이 부패하니가 가능한 것이다. 최고 권력자의 청렴성이 그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 민주당 모 후보는 대연정을 얘기한다. 이는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것으로 적폐 청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다른 후보는 적폐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재벌의 법정 부담금을 인하하고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 연립정부에 대한 입장은.

▲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권 연합정부가 필요하다. 국가 권력을 나눠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51%를 제외한 나머지 49%, 다시 말해 주도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연합정부는 만들어질 수 없다. 연립정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긴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강성 이미지다.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그런 지적도 있다. 강성 이미지와 통합이 상반된 개념은 아니다. 저는 나쁘면 나쁘다고 말한다. 부정부패, 불공정 등에 대해서 가혹하게 청산했다. 반면, 합리적 영역에서는 존중과 양보, 타협 등을 통해 통합을 이뤘다. 합법적이고 타당한 영역에선 결코 강경하지 않다. 통합에 있어 공정함과 투명함이 가장 중요하다. 계층과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성남의 통합이 이를 증명한다.

국민 뜻 대리집행 국가기관, 민심에 복종해야

적폐의 뿌리는 재벌횡포 ... 정경유착 끊어야

바른정당 제외한 야권 연합정부 필요

- 공장 노동자로 힘든 성장기를 보냈다.

▲ 어려움과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노동자 시절,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제 임으로 폭도라고 했다. 82년 대학에 들어가서야 세상을 제대로 봤다. 부끄러웠다. 제 임을 쥐어박고 싶었다. 소수의 나쁜 자들에게 속아 인생을 소진한 것이 분통났다. 사람은 정보에 의해 선인도, 악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가난은 이재명에게 어떤 의미인가. 가치관은.

▲ 저의 가치관은 공정함이다. 가난은 처음에는 운명이었고 지금은 자양분이다. 가난의 경험은 제 삶에 공작아서 정책이나, 지향점, 꿈의 원천이 됐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은 저의 친지들을 포함,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겪고 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적 모순을 바꿔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 호남 민심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호남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 마다 헌신과 희생, 결단을 통해 역사의 물결기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 호남 민심이 당내 세력이나 정치적 유산이 아닌 후보의 자질과 역량, 성과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란다. 적폐 청산을 통해 공정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 호남 민심의 시대적 안목과 탁월한 선택을 기다리겠다.

/정리=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